

2025 VISION

확대와 확장을 만드는  
영적 포포형 예배공동체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퍼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54:2-3

**NC 새지음교회**  
NEW CREATION CHURCH

담임목사 박지민 Rev. Jee Min Park, Senior Pastor

TEL 02)483-3277

FAX 02)472-0782

HOME PAGE [ncchurch.kr](http://ncchurch.kr)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12길 10

새지음교회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순복음)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 확대와 확장을 만드는 영적 폭포형 예배공동체

## 주일예배 순서

프라이밍 워십 오전 8:00	오버플로잉 워십 오전 10:30	온세대 오후 2:00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예배로의 부름 1장	통성 기도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요벨 성가대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 송 542 장	믿음의 선포	
대표기도 김민철 안수집사		
성경 봉독	이사야 54:1-3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5:12-14  이원균 전도사
설교 <b>부흥, 세상과 다른 말씀의 타당성 구조</b> 박지민 담임목사		
	통성기도	
광고/ 봉헌	505 장	
축도	박지민 담임목사	
		주기도문

(1)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2)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이다(3)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1) "Sing, O barren woman, you who never bore a child; burst into song, shout for joy, you who were never in labor; because more are the children of the desolate woman than of her who has a husband," says the LORD. (2) "Enlarge the place of your tent, stretch your tent curtains wide, do not hold back; lengthen your cords, strengthen your stakes. (3) For you will spread out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your descendants will dispossess nations and settle in their desolate cities.

여기에 모인 우리

1. 여 기 에 모 인 우 리 주 의 은 총 받 은 자 여 라  
 2. 주 님 기 에 모 인 후 리 하 사 랑 받 는 주 의 자 녀 도 라  
 3. 여 기 에 모 인 후 리 하 사 랑 받 는 주 의 자 녀 도 라

주 께 서 나 서 이 주 뜻 하 리 안 신 에 바 함 내 우 께 가 리 계 있 통 심 읍 을 펼 아 노 라 라 다  
 언 사 제 나 주 님 만 을 찬 양 하 더 며 파 라 가 리 하 오 니  
 시 험 을 당 할 때 도 함 께 계 계 심 을 믿 믿 노 노 라  
 때 로 을 는 당 할 때 도 함 께 계 계 심 을 믿 믿 노 노 라  
 이 믿 음 더 욱 군 세 라 주 가 지 켜 주 신 다

1.2.  
 어 둔 밤 에 도 주 의 밝 은 빛 인 도 하 여 주 신 다

3.  
 하 여 주 신 다

# 2025 믿음의 선포

새지음교회는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확대**를 만드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새지음교회는  
하나님의 **흐름**을 만들어,  
**확장**을 만드는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새지음교회는  
하나님의 **기류**를 감지하여,  
**깊이**를 만드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새지음교회는  
하나님의 **기류의 파도**가 밀려와,  
**넓이**를 만드는 **부흥의 공동체**입니다.

새지음교회는  
성령의 **흐름**을 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의 **공동체**입니다.



# 광고 / Announcement

## ▶ 이번 주일은 온가족이 함께, 연합예배로 드려드립니다.(오버플로잉 예배 시)

· 매월 첫째 주 예배는 성경 구절을 직접 성경책을 통해 찾습니다.

### ▶ 시무장로회 모임

· 일시 : 1월 5일(주일) 오버플로잉예배 후  
· 장소 : 새가족실

### ▶ 여전도 3반 월례회

· 일시 : 1월 5일(주일) 오버플로잉예배 후  
· 장소 : 본당

### ▶ 1월 재직기도회

· 일시 : 1월 8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 장소 : 본당

### ▶ NCMG 교육국 학부모 모임

· 일시 : 1월 18일(토) 오후 2시  
· 장소 : 청소년부실

### ▶ 열두광주리 특별새벽기도회:부흥

· 일시 : 2025년 1월 2일(목) - 17일(금) 새벽 5시  
(찬양 시작 : 4시 45분)  
· 장소 : 본당

### ▶ 공동의회

· 일시 : 1월 19일 오버플로잉 예배 후  
· 장소 : 본당

### ▶ 성전건축기도모임

· 일시 : 1월 25일(토) 오전 11시  
· 장소 : 본당

### ▶ 제주 한라산 등반 모집

· 일시 : 2월 17일(월)~19(수)  
· 문의 : 손영심 권사

### ▶ 제26차 새가족 성경공부모집

· 문의 : 조은숙 전도사

### ▶ 교회 화장실 청소

· 교회 화장실 청소로 헌신하실 성도님을 기다립니다.

### ▶ 지정주차 장소 이용 안내

· 교회에서 지정 받은 장소에 주차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세대 예배까지 드리시는 성도들은 식당 입구 통로에 주차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보기도제목

1)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2) 환우분들을 위해

3) 열두광주리 특새를 위해서

## 화장실청소순서

이번주

박승기 장로, 서인숙 권사

다음주

이재덕 안수집사, 김민철 안수집사

## 1주차 성경일독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창 14-17

창 18-20

창 21-23

창 24-26

창 27-30

창 31-33

창 34-36

##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



박지민 담임목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빛이 우리 새지음교회와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정, 사업장, 직장, 학교 등등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맞이 열두 광주리 특별새벽예배는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확대와 확장 of 역사를 위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마가복음 9:28-29의 말씀을 통하여 “부흥,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들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집에 돌아가 예수님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부흥의 원리 한가지가 녹아져 있습니다. 부흥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이런 종류”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각 사례별로 차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이 증거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도 그때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으로 귀신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 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귀신들이 등급별로 힘과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각 사례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본질을 깨닫기 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성급하게 달려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잠시 서서 문제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에 맞는 능력을 성령님께 기도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핵심 키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내 삶에 포진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전에 했던 경험으로, 힘으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맞는 능력, 대부분은 더 큰 능력입니다. 그 큰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능력이 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지음교회 성도님들, 2025년도에는 기도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어 하나님의 부흥, 확대와 확장 of 축복의 역사를 만나 누리는데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 주중예배 안내

## 수요 예배

1부 오전 10:30

2부 오후 7:30

1부 이경아 전도사  
2부 이경아 전도사

## 금요 예배

오후 8:30

부흥  
박지민 담임목사

## 새벽 예배

열두 광주리 특새

부흥

1월 2일(목) ~ 1월 17일(금)  
새벽 5시

## 다음주 기도순서

마중물 예배  
PRIMING WORSHIP

이경섭 장로

## 출석현황

주일 예배					
마중물예배(PRIMING)	88	넘쳐흐르는 예배(OVERFLOWING)	148	은세대 예배	120
미취학부		24	어린이부	23	
청소년부		17	청년부	32	
소계 : 452 명					
새벽 예배					
월	68	화	52	수	46
목[특새]	101	금[특새]	97		
소계 : 364 명					
주중 예배					
수요 예배(신년)	209	금요철야 예배	115		
소계 : 324 명					
합계 : 1,140 명					

# 새신자를 위한 교회

1. 초신자에게 잘하는 교회에 초신자가 옵니다.
2. 환영을 시작하는 곳은 주차장과 마당에서부터입니다.
3. 교회 안에서 초면인 사람에게 무조건 친절히 해야 합니다.
4. 앉는 자리를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언제나 밝게 인사해야 합니다.
6.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7. 불편함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직분자의 자세

1.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에 헌신하여 그 꿈을 이루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2. 나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기도하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3.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4. 나는 가르치고 지배하려 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섬기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5. 나는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6. 나는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가진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7. 나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알고, 마음과 귀를 여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8. 나는 불편함과 힘든 일을, 기쁨으로 먼저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9.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임직자가 되겠습니다.
10. 나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손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NEW CREATION CHURC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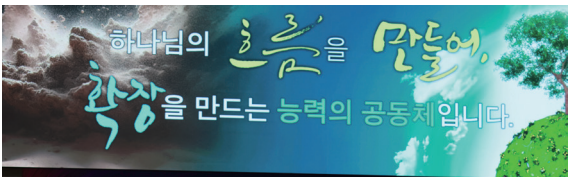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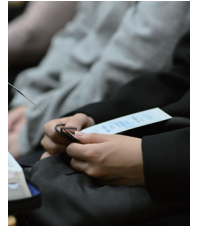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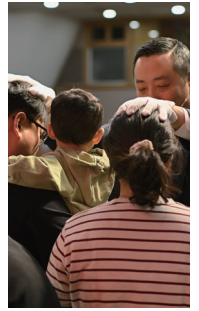
# 우리들 이야기

## 청년교구 채수룩목사 설교



## 송구영신예배





## 신년예배




## 일두광주리 특새 : 부흥



## 순복음충무신학교 축구부 베트남 동계 훈련





열두 광주리 특새



비  
하  
등

1월 2일(목) ~ 1월 17일(금)  
새벽 5시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퍼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지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54:2-3

요한일서 1:3-4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부정적이고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이 제목은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인간관계론에서 했던 유명한 말인 “타인은 지옥이다”에서 따온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장 폴 사르트르는 프랑스 사람으로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사이의 c이다” 이 뜻은 “인간은 태어난 날(birth) 부터 죽는 날(death) 까지 선택(choice) 해야만 한다”. 인간은 태어나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서 스스로 선택하여 삶을 개척해 나가는 실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장 폴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이 “타인은 지옥이다”로 이 의미가 삶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지옥이 되고 또한 나는 그 사람의 인생의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수정하기 원합니다. “타인은 천국이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타인은 지옥이다”를 “타인은 천국이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인이 지옥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사무엘상 1장을 세상적 인간의 눈으로 보면 타인이 지옥이다가 보입니다. 사무엘상 1:2을 보면 엘가나란 제사장에게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나는 본처이고 그리고 브닌나는 자녀를 얻기 위해 들인 첩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고 브닌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브닌나는 타인은 지옥입니다의 타인입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6절에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게 합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한다고 잘해 주지만 제사장이지만 첩을 들인 남편 엘가나가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남편이 타인은 지옥이다의 타인입니다. 거기에 14절에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상한 심령으로 성전에 올라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이런 한나를 보고 술 취했다고 책망합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타인은 지옥이다에서 타인입니다. 지금 한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내 삶에 지옥을 만드는 타인들로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타인은 지옥이다를 타인은 천국이다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각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봐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신앙이 되면 해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액면만 봄으로 그것이 저주처럼 보이고 또한 부정적인 것, 원망, 불평의 것들로 보인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봤더니 시각의 변화가 생겨서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다 타인은 지옥이다의 지옥입니다. 특별히 브닌나는 사무엘상 1:6에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에게 브닌나는 썩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브닌나를 보면 브닌나가 단순히 나쁜 여자가 아니라 불쌍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에 제사 후에 남편 엘가나가 자녀를 낳아준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5절에 한나에게는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줍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한나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제물의 분깃을 주니 브닌나의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브닌나가 나쁜 여자가 아니라 엘가나란 남편이 나쁜 것이고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나는 그 브닌나가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어두운 사사 시대의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 받는 사무엘이란 아들을 얻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브닌나가 예수님을 통하여 보니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하는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시각의 변화, 이 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섭리와 뜻을 발견하여 인생의 해석이 바뀌게 되어 타인은 지옥이다를 타인은 천국이다로 바꾸어 나가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타인은 지옥이다를 타인은 천국이다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의 원리 2 가지를 추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 1) 자기 중심성의 변화가 타인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요한일서 1:3-4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3절에 “우리과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요한일서에서 삼서까지의 핵심 주제는 “생명의 사귀”으로 2 사귀를 이야기 합니다.

- ① 예수님과의 생명의 사귀
- ② 하나님의 백성과의 생명의 사귀

그리고 이 생명의 사귀가 만들어질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것은 이 생명의 사귀, 먼저는 예수님과의 생명의 사귀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백성과의 생명의 사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은 지옥이다를 타인은 천국이다로 만드는 능력의 시작이 예수님과의 생명의 사귀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그의 생명의 사권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어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만들어지게 되는가? “자기 중심성이 깨어져 주체에서 객체로 변화 됩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생명의 사권을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사권의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할 때 생명의 사권이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할 때 생명의 사권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적용하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한 성도와의 관계에서 생명의 사권이 없어지고 있다, 깨어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한 성도와의 관계에서 생명의 사권이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사권을 깨는 근본이 어두움인데, 이 어두움이 죄이고, 이 죄의 근본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과 세상과 우주의 중심에 서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사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고 이것이 죄이고 어두움이고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사권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24에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자기 중심성을 깨는 것을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주체”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주체라고 하고 “객체”는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객체”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인 주체이셨는데 스스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객체”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시어 생명의 사권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과 생명의 사권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체가 되어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한 존재인 객체로 생각하며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사권이 만들어짐을 통하여 역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태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 객체가 되어 사람들의 의해서 끌려다니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을 통하여 생명의 사권을 만드는 존재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생명의 사권이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혁명적인 인간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사권이 없을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주체가 되어 너는 나를 위한 존재라고 삽니다. 남편은 나를 위한 존재, 아내는 나를 위한 존재, 자녀들도 나를 위한 존재, 옆에 있는 성도도 나를 위한 존재,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되는가? 안되요. 그러니 타인이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이 생명의 사권이 있으면 내가 주체의 자리에서 객체의 자리로 내려와 이제 고백이 달라집니다. “나는 당신을 위한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



님이 주체가 되고 나는 객체가 되어서 나는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됨을 통하여 천국이 만들어지게 되고 타인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킴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관계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풀린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뿐 아니라 내 내면의 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자기 중심성의 죄의 어두움이 작동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며 분노하는 자기 중심성이 관계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킴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이것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돌아보는 성찰, 지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니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성이 깨지지 않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사킴이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명의 사킴도 점점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타인이 지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제가 몇 주 전 토요일 사역자 회의 때 어떤 사역자의 잘못에 대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분노로 책상을 치고 오른손 핏줄이 터져서 피멍이 들 정도로, 그리고 화가 주체가 되지 않아서 회의 가운데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근처를 돌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처음엔 그냥 끝장내, 그냥 다 때려쳐 등등 독기가 올라와요, 한참 기도하니 제 안에 독기가 빠지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시는데 무엇을 조명하는가? 분명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잘못이 있지만 제 안의 자기중심성의 죄로 말미암은 분노, 그것을 성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회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 전체 카톡 방에다 저녁에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송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타인이 지옥이 아니라 타인이 오히려 천국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에 2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9에 죄의 고백에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①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②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사하신다” 헬라어 원어가 “아피에미”로 뜻이 이 단어가 법적 용어로 “내보내다, 용서하다” 강조점이 “법적인 측면에서 죄의 문제를 사해준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카다리조”로 뜻이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 강조점이 “죄의 영향력에서 깨끗하게 하다” 입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에서 2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했다면

하나님께 고백할 때 법적으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죄의 결과에 대한 영향력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 혼자만의 죄는 상관이 없지만 누군가와 내 죄가 연결되어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나의 죄에 대하여 자백, 고백해야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죄의 영향력에서 깨끗하여 자유케 됨을 통하여 타인이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천국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행해야 합니다.

교부시대 이후 수 세기 동안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영성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로 뜻이 “대수롭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그렇다고 금하지도 않은 것, 그래서 선하거나 악한 것도 아니고 구원과 연결된 것도 아닌 것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입니다. 내 상황과 양심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로마서 14:3을 보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며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또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성도들 안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문제 되지 않는다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먹지 못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믿음 없다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먹던 먹지 않던 둘 다 상관없다 이것이 “아디아포라”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똥한 주제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생명의 사귀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로 이야기하면 큐티를 하면 좋지요. 그런데 하지 않는다고 구원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새벽 예배 안한다고 구원을 못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벽 예배를 하는 사람이든지, 안하던 사람이든지 자녀로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귀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아디아포라”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때 거기에 생명의 사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는 자신이 살아 있음에도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탕자를 보며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탕자의 형은 분노합니다.

지금 탕자의 형에게 잘못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 말을 잘 듣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명의 사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왜 사랑해야 하는가? 왜 남편과 아내가 화목해야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킴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며 행할 때 거기에 생명의 사킴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카 기도했던 이들이 사사기 마지막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카? 같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서로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의 사킴의 깨짐입니다. 타인이 천국이 아니라 타인이 지옥이 됩니다.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사사기 21:25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생명의 사킴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생명의 사킴이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 안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다면 자기 부인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중심성이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사킴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올 한해가 지나기 전에 다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사킴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관계를 이야기하는 대인 관계는 영적인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4명 밖에는 없습니다. 제 4명의 아이들이지요, 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에 제 사무실 마음대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상관없이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제 사무실 들어와서 냉장고 마음대로 열어서 마실 것 가져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나아가 생명의 사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왜 사킴이 깨어질까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성이란 죄와 어둠으로 내 안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져 주시며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비판하고 정죄할지라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안아 주시며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다시 생명의 사킴을 통하여 지옥같은 인생, 지옥 같은 인간관계를 타인은 지옥이다가 아니라 타인은 천국이다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프라이밍 워십  
PRIMING WORSHIP

오전 8:00

오버플로잉 워십  
OVERFLOWING WORSHIP

오전 10:30

은세대

오후 2:00

## 예배 & 모임 Worship Service & Meeting

수요 1·2부	수요일 오전 10:30 오후 7:30 / 본당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오전 10:30/교육관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30/본당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본당
새벽 예배	월-금 오전 5:00/본당	미취학부 모임	토요일 오후 2:00/교육관
실버 예배	셋째주 목요일 오전 11:00/꿈토리	어린이부 모임	토요일 오후 2:00/교육관
미취학부예배	주일 오전 11:00/교육관	청소년부 모임	토요일 오후 2:00/교육관
어린이부예배	주일 오전 10:30/교육관	청년부 모임	목요일 오후 8:00/청년교구실

## 교역자 & 간사 NC Pastors

목회전략/남전도	구태영 목사	청소년부	이윤형 전도사	디자인	최예은 간사
청년교구	채수록 목사	어린이부/예배	이원균 전도사	협동사역자	김동학 목사
헤세드	오혜화 목사	미취학부	유민지 전도사		이재형 목사
다비다	최정순 전도사	음악심리	이경아 전도사	협동/여전도	양레 전도사
새가족/행정	조은숙 전도사	방승	이대차 전도사	협동/26주교육	박한나 전도사
테바교구	임길자 간사		오상열 간사	협동/5K운동	이종숙 전도사

## 운영 위원회 Church Committee

김용선	장로	박승기	장로
김평규	장로	우정석	장로
박수영	장로	이경섭	장로

## 목회협력 위원회 Ministry Committee

예배국	서형동 안수집사
선교국	김근우 안수집사
교육국	임채우 집사
관리국	조근래 안수집사
대외협력국	주광순 권사

## 찾아오시는 길 Direction



## 교회 안내 Information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12길 10  
TEL | 02-483-3277  
FAX | 02-472-0782  
HOMEPAGE | ncchurch.kr